

# 천문·우주 탐사...미래 과학자를 꿈꾸다

### '2025 광주과학발명페스티벌' 17~18일 국립광주과학관 천체과학·AI자동차 탐험·관성로켓 낙하산·우주식량 체험

광주시와 국립광주과학관은 매년 다양한 주제로 '광주과학발명 페스티벌'을 진행해왔다. '과학과 발명으로 만나는 에너지 세상', '과학과 발명으로 만나는 에코라이프', '퓨레카! 미래를 바꾸다' 등 매년 다양한 주제로 열린 행사는 최대 2만7000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를 모았다.

오는 17·18일 과학관 야외광장에서 개최하는 '2025 광주과학발명페스티벌'의 주제는 '과학과 발명으로 만나는 우주세상'이다. 오는 19일은 '발명의 날'이어서 행사 개최의 의미가 크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올 하반기 누리호 2차 발사와 연계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천문·우주 관련 이슈와 우주 탐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중점 배치했다. 이를 위해 카이스트 우주연구원, 국립항공박물관, 우주전파센터, 한국천문연구원 등 다양한 우주·항공 유관 기관이 참여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총 8개 마당, 63종의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청소년은 물론, 가족 단위 시민들까지 겨냥했다.

행사는 ▲우주과학마당 ▲창의발명마당 ▲미래상상마당 ▲기초과학마당 ▲과학나눔마당 등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첨단 체험을 선보인다.

우주과학마당에서는 우주탐사선, 우주로켓 조립, 관성로켓 낙하산 실험부터 우주식량 만들기 등 '한 번쯤 접해보고 싶은 천체과학'을 체험해볼 수 있다.

체험을 통해 발명품 속 과학원리를 스스로 탐구해보는 창의발명마당에선 무게중심 미끄럼틀, 피칭머신, 오르니콧, 울림통 악기 등 다양한 발명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미래상상마당에선 '내가 만드는 AI 자동차', 레고 마시안 탐사, 드론 활용 우주탐사 등 과학+첨단 융합 체험이, 기초과학마당에선 뇌 구조 마스크, 병뚜껑 진동로봇, 정전기 미니로켓, 바다 유리키링 등 재미와 원리가 함께하는 DIY 체험이 준비됐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NASA 협력 연구 등 '실제 현장형' 전시·상담 코너도 즐길 수 있다.

과학나눔마당에서는 광주식약청 국가해양안전교육센터, 전남경찰청,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등이 튼튼한 먹거리 탐험대, 해양환경 이동차, 과학수사대(CSI 체험 교실),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



'2025 광주과학발명페스티벌'이 17~18일 국립광주과학관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 모습. (국립광주과학관 제공)

스, 이동하는 안전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체험엔 관성로켓 낙하산, AI자동차 탐험대, 우주식량 만들기 등 현장 연구원·교수진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실물 전기차·로봇 탑승, AI 챗봇 조립, 미래 직업 멘토링 등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다.

그밖에 광주시립교향악단과 과학관 음악회(17일 오후 1시), AI·로봇 과학터치 강연(본관 상 상홀, 17일 오후 2시), 온가족 뮤지컬 갈라쇼(18일 오후 2시), '우주

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권오철 작가 강연(17일), 우주개발과 기후대응을 주제로 한 관객 참여형 SF 토론극 '발사 6개월 전'(18일)도 흥미로운 프로그램이다.

행사장에서는 ▲사전 소문내기 이벤트 ▲부스 체험 참여자 기념품 ▲스티커 미션 이벤트 ▲발명 매니아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쏟아진다.

참가 접수는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부스별 선착순 현장 접수가 원칙. 인기 부스는 30분 이내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오픈런' 대비가 필요하다.

한편, 행사 기간 내 국립광주과학관 상설전시관(본관·어린이관·AI관)도 무료 개방된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 네이버·다음, 대선 특별페이지 개설 정보 제공

네이버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별페이지를 개설하고 후보자 정보 관련 서비스 운영 기준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페이지는 각 언론사의 주요 선거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사 픽', 여론조사 보도 및 분석을 모은 '여론조사', 선거 당일 특보 및 출구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특집 라이브' 등으로 구성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논란이 된 '좌표 찍기'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 내 특정 댓글에 일정 기준 이상 공감, 비공감이 집중 증가하는 경우 해당 기사에 안내 문구를 표기하고 언론사에 알림을 발송하는 기능도 적용했다.

후보자 정보의 경우 내달 11일 대통령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후보자명에 자동완성 및 검색어 제안 기능이 제한되며, 검색어가 오차

로 추정돼도 후보자명을 검색어 제안으로 노출하지 않는다.

포털 다음도 이날부터 대선 특집 페이지를 열었다. 홈, 뉴스, 여론조사, 언론사 특집, 경선·토론탭으로 구성됐으며, 대선 일정과 선거 정보, 관련 뉴스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예비 후보들의 공약, 정책 기사, 경선, 토론회 관련 영상도 확인할 수 있다.

선거가 본격화하는 내달 중순에는 후보자와 공약, 투표소 등의 선거 정보를 추가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다음은 대선 서비스 운영 원칙도 공시했다. 공정하고 충실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정보나 딥페이크 등 잘못된 정보나 기사에 대해 모니터링과 24시간 운영하는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 SK텔레콤 유심 재설정 첫날 2만3000명 이용

SK텔레콤은 13일 유심 재설정 설루션 도입 첫날인 전날 모두 2만3000명의 고객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SKT는 해킹 피해 대응의 일환으로 실물 유심 교체 없이 유심 일부 사용자 정보를 변경해 복제를 차단하는 '유심 재설정' 서비스를 전날부터 시행 중이다.

임봉호 이동통신 사업부장은 이날 삼화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체 유심교체의 대략 20% 정도가 서비스 첫날 유심 재설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역시 전날부터 해외 로밍 가입자에게까지 업그레이드가 진행된 유심보호서비스와 관련해서 "MLO 고객은 어젯밤 자동가입이 완료됐고, 15일까지 (모든 고객 가입을) 완료하는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SKT는 전날 유심교체는 12만명, 전체 교체자는 159만명에 이르렀다고 확인했다. 잔여 교체 예약은 714만건이다.

이날 새로 공개돼 사전판매에 들어간 '삼성 갤럭시 S25 엣지' 공급과 관련해서 신규가입 중지 기간에는 판매가 불가하지만 기기변경 고객에 대해서는 예약을 받아 진행할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임 사업부장은 "T월드 2천600개 매장과 온라인에서는 신규 정지가 해지되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전 예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기기변경 고객은 예약을 받고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리점 신규 가입 재개 시점과 관련해서 유심보호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완료했고 유심 재설정도 병행 중인 만큼 이른 시점에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 쏟아 IT 정보

### KT 폰케어 여행자보험 프로모션

KT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고객을 위해 8월 31일까지 'KT 365 폰케어 여행자보험 프로모션'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로모션을 통해 KT는 휴대폰 보험 서비스 365 폰케어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일로부터 1년간 '해외여행자 보험' 무료 이용 혜택과 해외 단말기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여행자 보험은 해외 상해·질병 치료비,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며, 고객은 별도 비용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여행 전 본인확인 및 제한 여행 국가 확인을 위해 '아껴드림' 홈페이지에서 KT 365 폰케어 여행자보험을 신청해야 한다.

### LGU+, 알뜰폰 플랫폼 '알닷'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전용 요금 비교·가입 플랫폼 '알닷'이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3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알닷은 600여 개의 알뜰폰 요금제를 비교하고 비대면 개통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용 패턴에 기반한 요금제를 추천하고 미성년자·외국인 등의 '셀프 개통'을 지원한다.

데이터 사용량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알닷케어' 서비스는 지난 1월 출시된 지 4개월 만에 이용 건수 약 40만 건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는 알닷에 로밍, 인터넷 등 부가 서비스 신청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 카카오 AI '카나나' 베타테스트

카카오는 8일부터 AI 서비스 카나나의 비공개 베타테스트(CBT)에 들어갔다.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 중 가입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카카오는 테스트 기간 약 3주쯤로 정기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서비스 완성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정식 버전을 출시할 계획이다.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카카오'에서 공개한 카나나는 개인 및 그룹방에서 이용자를 돕는 'AI 메이트'다.

### 네이버 제휴 멤버십 요금 그대로

네이버는 10일 넷플릭스 요금 인상에도 소핑앱 네이버플러스와 제휴 멤버십 요금제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확인했다.

네이버플러스는 앞서 지난해 11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추가 비용 없이 넷플릭스 광고형 스탠더드 요금제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휴 멤버십을 출시했다. 이에 따라 월 4500원, 연간 회원의 경우 월 3500원을 내면 네이버플러스와 넷플릭스 멤버십을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연합뉴스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이호동 김박소영 그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